

News

美 연준, 3월 빅스텝 가능성 잣아드나

e대한경제

다음 달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1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 짙어…

3월 연준 FOMC에서 결정되는 금리인상 폭에 관심 집중… 최근까지만 해도 소비자물가 급등하며 0.50%p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 대두되었으나 0.25%p 인상 가능성에 힘 실려…

“이자 장사만으로는 한계”… 금융지주, 비이자 수익 관리 골머리

조선비즈

5대 금융지주, 비이자이익 총액 작년(10조 6,427억원) 대비 약 10.55% 증가한 11조 7,584억원 집계… 규모상 신한, KB, 농협이 1~3위

하나금융만 전년대비 비이자이익 19.3% 감소한 1조 7,770억원 기록… 매매평가이익 감소가 영향… 향후 WM과 IB 부문 등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은행 모바일인증 성과… 빅테크 공세에 맞서 디지털금융 속도

파이낸셜뉴스

국내 은행들, 빅테크보다 늦은 모바일인증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 보여…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은 작년부터 모바일인증서비스 출시를 통해 가입자 확대에 공들여…

KB국민은행, 16일 기준 KB모바일인증서 가입자가 1,000만명 돌파… 우리은행, 올해 안으로 사설인증서 출시 예정…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을 통해 범용성 확대 전략

기업·산업·수출입은행, 7년만에 희망퇴직 부활한다

이데일리

정부, 국책은행 측에 구체적인 희망퇴직 조건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기획재정부, 기업은행, 기업은행 시니어 노조, 희망퇴직 제도 재도입 방안 논의

그간 자발적 퇴사자가 거의 없는 실정에 청년 채용 늘리지 못한다는 지적 연이어… 당국은 실무 논의 단계일 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

“바쁜데 왜 만나”… 전화 한통이면 보험계약 해지한다

머니S

손보사들, TM과 CM 꾸준한 증가 추세… 반면 장기상품을 주로 다루는 생보사 통신판매는 상대적으로 저조… 약 1% 내외

보험업계, 보험해지를 전화 한통으로 10분 내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 확산된 영향

한화생명 "현재 RBC비율 유지할 것…추가 자본확충도 검토"

연합인포맥스

한화생명, 17일 실적발표 컨콜에서 "올해 1월 1일 RBC 민감도 줄이기 위해 계정재분류 및 후순위채 최근 발행" 언급

RBC는 올해까지만 유효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는 K-ICS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 연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등 추가 발행 여부도 검토 중… 자사주 활용 계획은 없어…

미래에셋, 한투에 삼성까지…펀드경쟁 ‘후끈’, 승부처는 ETF·분산투자

아시아투데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치열한 펀드판매 선두 경쟁…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 중심, 한국투자증권은 ESG 펀드 앞세워 투자자 모시기에 공들여…

여기에 공모주 펀드를 주력으로 한 삼성증권이 1년 새 급증한 수익 앞세워 경쟁 참여하며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 지지부진한 증시에도 간접 투자 수요 유지되고 있기 때문

12월 시중에 풀린 돈 3613조원…유동성 파티 지속

아주경제

작년 12월 시중 통화량(M2 기준) 3,613조원으로 전달대비 23조 8,000억원 증가…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 대출 옥죄기에도 유동성 파티 지속 때문

다만 증가세는 둔화된 상황…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경기 둔화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상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